

여 '당권투쟁' 격화... 쇠신풍에 역풍 조짐

민주당도 개혁 논의 탄력

내년 총선 '호남 물갈이' 가능성 지역 정치권 촉각

소장과, 비대위 재구성→전당원투표제 관철→당권 장악 추진

황우여 원내대표·친박도 동조...내일 의총서 격한 공방 가능성

한나라당 소장과가 쇠신의 공극적 목표를 사실상 당권에 두면서 여권 내 권력투쟁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비주류의 힘으로 당선된 신임 황우여 원내대표가 취임 초부터 구주류인 친이(친이명박) 계는 물론 청와대와 '각 세우기'를 본격화하고 나서는 등 소장파의 쇠신 행보를 돕고 있어 여권 권력 구도가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

키스 것"이라며 "현행 당헌·규에는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도록 돼있다"고 말했다. 새 지도부가 선출될 때까지 자신이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기존 최고위원들이 참여하는 '임시 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친이 주류는 가급적 반박을 삼가고 있지만 속을 끓이고 있다. 친이 직계인 김영우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당의 쇠신도 중요하지만 '나 빼고 다 바꿔' 식의 주장은 단합을 해친다"며 "대부분 MB(이명박 대통령) 덕을 토틀고 보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MB 때문에 다 죽는다고 아우성치는 것은 심한 일 아니냐"고 주장했다.

다만 친이계 인사는 "사실상 비대위의 역할이 크지 않음에도 소장과가 과욕을 부리는 것은 말이 안 되며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며 "신임 황 원내대표가 자기 목소리를 못 내고 소장파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열릴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는 비대위 구성은 물론 각종 정책을 놓고 주류와 비주류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황 원내대표와 안 전 대표, 정 의화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모처에서 회동, 비대위 구성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대표가 부정부패를 보이면서 불발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당의 쇠신 바람에 민주당의 개혁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의 개혁 논의는 내년 총선 공천과 대선 후보 경선 방법 등에 방점이 찍히면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올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개혁 바람이 탄력을 받을 경우, '호남 물갈이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9일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 및 공천제도 개혁을 언급하며 "정권이 자기 변신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면서 "민주당 자기 혁신의 이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혁신을 강조했다.

이는 민주당이 재보선에서 드러난 변화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정치권의 변화를 선도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손 대표는 또한, 지난 8일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어 당 개혁특위의 개혁안에 대해 논의했다.

개혁안은 전당대회에서는 전 당원 투표제를, 대통령 및 국회의원 후보 선출시 일반 국민도 참여하는 국민 경선제를 실시하는 것 등이 골자다.

당권은 당원에게, 선출직 후보의 선출권은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 개혁안은 개혁특위가 재보선 국면에 접어들기 전인 지난 2월까지 논의했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민주당 개혁특위 위원장인 천정배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앞으로 더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며 "최고위 논의의 거처 상반기 중에 개혁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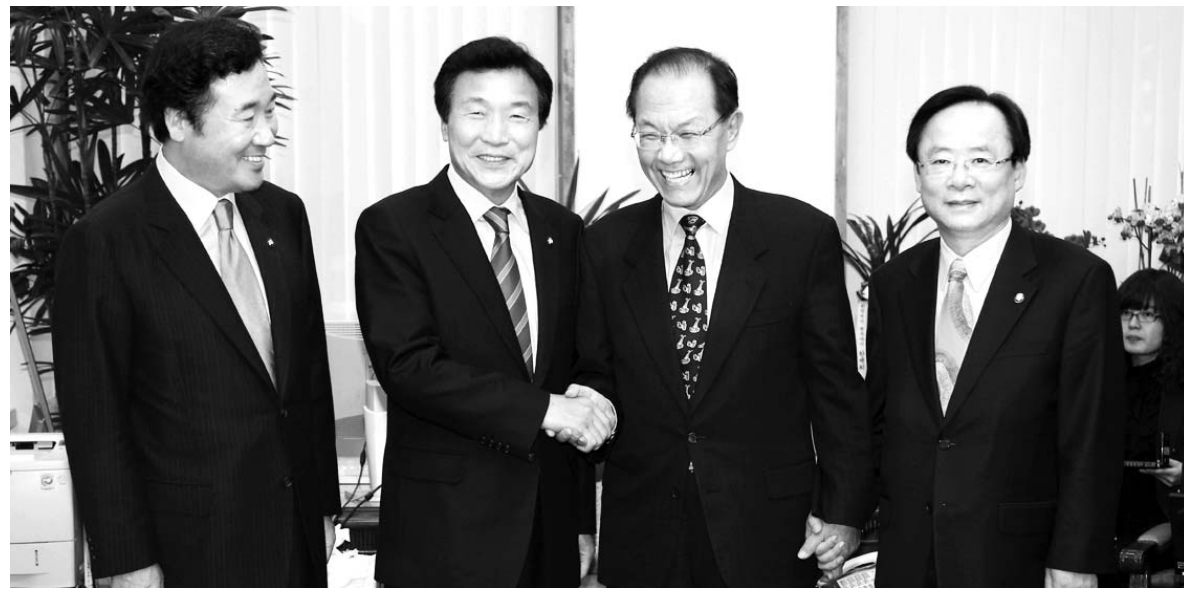
문제는 공천 개혁을 통한 혁신의

문제가 이른바 '호남 물갈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텃밭인 호남에서의 인적 쇠신 없이 감동적인 개혁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를 반영하듯, 박지원 원내대표도 지난 7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감동적인 공천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잔인한 결단도 필요하다"고 말해, 호남 물갈이 가능성이 시사했다.

이와 관련, 당내에서는 국민참여경선 등은 오히려 개혁 국회의원의 기대를 저버주는 결과를 낼 수 있다며 지역민들의 의정평가와 만족도 등을 계량화, 성적이 낮은 현역 국회의원에 감점을 주는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9일 오후 국회 당 대표실을 찾은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민주당 이낙연 사무총장, 민주당 손학규 대표,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소장파와는 안상수 전 대표가 물러나면서 제안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거부하면서 황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 비대위를 재구성, 의원총회의 추진을 받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쇠신 소장파들은 비대위 구성부터 자신들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고 비대위 활동을 통해 계파간격을 막기 위한 전(全)당원 투표제와 대표·최고위원 분리선출을 관철한 뒤 소장파 간 미니 경선 등을 통해 뽑은 젊은 후보를 당권에 도전시킨다는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친박(친박근혜)계도 직접 당권 후보를 내기 보다는 소장파 지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재보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안 전 대표를 제외하고 다른 최고위원들이 모두 물러나는 것은 당을 마비시

어려운 시점에서 지역위원회가 없는 상황에서 지역위원장 자리를 누가 차지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우선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 공천 기준 등을 둘러싸고 서갑원 전 의원과 갈등을 빚으면서 탈당한 노관규 순천시장이 거론되고 있다. 노 시장은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아연연대 지지를 선언하면서 불출마해 복당이 이뤄지면 '정치적 명분'은 확보하는 셈이지만, 자치단체장이 지역위원장을 맡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점이 변수다.

또한,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최근 복당 신청을 한 조순용 전 청와

대 정무수석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조 전 수석은 박지원 전 원내대표와 이낙연 사무총장 등 당내 인사들과 친분이 두텁고, 지난 보궐선거에서 일부 지역위원회 소속 당원들의 지지를 받은 점이 유리하다고 판단되지만, 아연연대에 반발해 탈당한 인사에 대한 복당이 정치적 명분이 있는지는 논란도 낳고 있다.

또한,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조재환 당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도 자전 타향으로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서 전 의원의 의원직 박탈과 지난 4월 보선에서 아연연대에 따른 민주당 성향의 후보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함에 따라 순천시지역위원회의 기틀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며 "따라서 시민의 지지를 받고 당원들의 마음을 한데 모을 수 있는 지역위원장을 선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공석' 민주 순천시지역위원장 누가 맡을까 노관규·조순용·조재환씨 거론

서갑원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된 민주당 전남 순천시지역위원장을 누가 맡을 지에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민주당 전남도당 등에 따르면 순천시지역위원회는 지난 1월 위원장이었던 서갑원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사고지구당으로 지정됐다.

민주당 도당은 지난 4·27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의원이 지역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중앙당이 순천을 아연연대 지역으로 지정, 후보를 공천하지 않으면서 지역위원장 자리는 '무주공산'이 됐다.

이에 따라 지역구 국회의원이 없는 상황에서 지역위원장 자리를 누가 차지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우선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 공천 기준 등을 둘러싸고 서갑원 전 의원과 갈등을 빚으면서 탈당한 노관규 순천시장이 거론되고 있다. 노 시장은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아연연대 지지를 선언하면서 불출마해 복당이 이뤄지면 '정치적 명분'은 확보하는 셈이지만, 자치단체장이 지역위원장을 맡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점이 변수다.

또한,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최근 복당 신청을 한 조순용 전 청와

대 정무수석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조 전 수석은 박지원 전 원내대표와 이낙연 사무총장 등 당내 인사들과 친분이 두텁고, 지난 보궐선거에서 일부 지역위원회 소속 당원들의 지지를 받은 점이 유리하다고 판단되지만, 아연연대에 반발해 탈당한 인사에 대한 복당이 정치적 명분이 있는지는 논란도 낳고 있다.

또한,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조재환 당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도 자전 타향으로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서 전 의원의 의원직 박탈과 지난 4월 보선에서 아연연대에 따른 민주당 성향의 후보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함에 따라 순천시지역위원회의 기틀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며 "따라서 시민의 지지를 받고 당원들의 마음을 한데 모을 수 있는 지역위원장을 선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한나라 '쇄신 파고' 속 박근혜 행보는? 나서기는 그렇고 정책 구상만

여권의 쇠신 폭풍을 대하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원내대표 경선과 쇠신 파동 속에서 당내 비주류가 주도권을 잡는 등 여권 내 권력투쟁이 급변하는 가운데 당내 소장파 등을 중심으로 박 전 대표가 전면에서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소장파는 한나라당의 위기 돌파를 위해서는 박 전 대표의 부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박 전 대표가 당장 전면에서 나서 가능성은 작다는 게 중론이다. 국민에게 좋은 이미지 또는 신비한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각종 여론조사

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박 전 대표가 굳이 침몰할 가능성이 큰 배의 얼굴이 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자칫 쇠신 폭풍 속에 발을 잘못 들여놓았다간 박 전 대표도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마냥 당내 분란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적극적 정책 행보를 할 가능성은 크다. 우선 대선 지난 특사 방문기간 일단을 공개한 정책 구상이 좀 더 구체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다수 친박 의원들의 관측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사퇴 정치권 보수대연합 부상 관심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가 9일 대표사에서 전격 사퇴, 향후 정치권에 보수대연합이 가시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에서 "우리 당 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며 "우리 당이 어떻게 변화하느냐가 생존의 갈림길에 있을 것이고 그 변화를 위해 나를 밀어내야 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당은 이 대표의 사퇴를 수락하고 당헌에 따라 변용전 선임 최고위원을 대표로 선출했다.

이 대표는 연석회의 후 기자회견을

를 갖고 사퇴 배경으로 "우리 당과 정체를 같이하고 우리 당 출범시에 손을 잡았던 세력들이 다시 한번 결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총권력을 공통 지역기반으로 한 심대형 국민중심 연합 대표와의 재결합을 추진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일단, 이 대표의 사퇴가 보수 정당과의 합당 또는 연대로 이어질지 관심사다. 정치권에서는 보수대연합이나 앞으로 일단 선진당과 국민중심연합이 재결합한 뒤 내년 총선과 대선 국면에서 한나라당과 합당 또는 후보 단일화 같은 선거연대를 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박지경기자 jkpark@r

"빛고을노인타운 이용료 인상 안돼"

광주시의회 진선거 의원은 9일 광주시의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이용료 인상 추진에 대해 "자구 노력 없이 이용료만 올려 운영 부담을 노인에게 전가하려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09년 6월 개원한 노인건강타운은 애초 골프장 운영으로 연간 20억원을 지원받아 일체 시 재정부담 없이 운영한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지만 현재는 계획보다 3배나 많은 62억원의 운영비가 사용된다 보니 시가 재정부담을 느껴 이용료를 인상하려고 한

다"며 "광주시가 정책판단을 잘못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노인건강타운의 최대 장점은 이용 비용이 거의 무료라는 점으로, 수입이 없는 어르신들이 시설 이용도 하고 친구도 사귀면서 노후를 즐기실 수 있는 것"이라며 "이용료 인상은 어르신들에게 시설을 이용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공무원 대출

공무원 대출

- ▶ 대상: 공무원, 교직원, 군무원
- ▶ 금액: 500만원~8,000만원
- ▶ 금리: 년 5%~
 - 대출과다나 연체로 대출이 어려운 분
 -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실 분
 - 개인회생, 신용회복 지원대상인 분 가능

직장인 대출

- ▶ 금액: 500만원~5,000만원
- ▶ 금리: 년 9%~
- ▶ 대상: 3개월 이상 근무자 누구나 가능 (신용불량자 제외)

하나 1544-0936
011-705-2230

등록번호: 2011-3430067-25-5-00009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400-13(중계수료료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
대부중개업 등록기간: 대구광역시 대표자: 백영학
제1금융권이자율(최저) 5.5%~13% (연체금리 18%~22%) 제2금융권이자율(최저) 11.9%~33% (연체금리 22%~44%) 제3금융권이자율(최저) 13.3%~44% (연체금리 44%)

남성 성기능 강화제

본제품은 왕라, 복분자, 구기자, 갈근 등 20여가지의 한약재로 제조하였으며, 특히 왕라는 허브의 일종으로 자양강장 역할을 하여 다미아나 혈관과 호르몬계의 도움이 된다. 단백질을 저장하는 힘을 둔구어 근육을 강하게 해준다는 뮤쿠나프리언스를 주성분으로 하여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당신의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설치방법 및 제품특징

- 평소에 밝기는 되나 지속성이 없거나 조루가 있는 분들은 성관계 전 약 2-3시간전에 1정을 섭취하면 1-5일까지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 밝기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분들은 1일 4정도를 3-7일 정도를 연속으로 섭취하시면 밝기가 잡힙니다.

설명이 필요없습니다. 직접 드셔보시고 확인하세요.

문의 전화 010-7770-8138 주문즉시택배 무료배송

농협 302-0136-6325-61 권옥연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셀프아트 단열결로방지 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 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 난방비 절감효과,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꿔주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특허 제0497254호 / 특허 제10-0562035호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 WWW.IPALG.COM 또는 이파엘지.kr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